

眼鍼療法에 관한 文獻的 研究

이정태 · 이병열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literature Study on Yanzhen Therapy(眼鍼療法)

Li, Zheng-Tai · Lee, Byung-Ryul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 Jon University

Objective : To study the effects and merits of the Yanzhen Therapy(眼針療法),

Method : We researched through studying 28 kinds of literature.

Result : 1. The Division of Eye Region(眼區分劃), the Position of Yanxue(眼穴定位) and the mutual connection with Internal Organ(臟腑) during the Yanzhen Therapy(眼鍼療法) were made according to Huata's(華佗) Thesis, and were made by combining Neijing(內經) Theory about eyes, Yinyang and Five Elements(陰陽五行) Theory, Meridian & Zang-Xiang Theory(經絡藏象學說), the Five Circles & Eight Regions(五輪八廓學說) Theory, and the Zhouyi Eight Diagrams(周易八卦) Theory.

2. The assignment between the Internal Organ and Eye-Division(眼區分劃) was formed on the basis of the Five-Circles and Eight-Regions Theory in Ophthalmology(眼科五輪八廓學說) of Zhengz - hizhunsheng(證治準繩).

3. The Assignment(排列) & Position(方位) of the Congenital Eight Diagram(先天八卦) and the Acquired Eight Diagram(後天八卦) have influenced the Division of Eight Eye Region(眼鍼八區) and the Position of Yanxue(眼穴定位) significantly.

4. It showed no difference with the Map of Eye Position of Eight-Division(八廓眼位圖) like as Shenshiyaohan(審視瑤函), Yinhaizhinan(銀海指南) and Sanzijing of Ophthalmology(眼科三字經).

Conclusion : While combining organically with other methods of acupuncture, the Yanzhen Therapy(眼鍼療法) may have better clinical effectiveness, and is also expect to expand the clinical indication.

key words : Eye-Region, the Position of Yanxue, Yanzhen Therapy

I. 서론

鍼療法은 韓醫學의 傳統療法の 하나로서, 近代에 이르러서는 人體의 特定된 局所部位와 全身의 相關性原理를 根據로 한 分區鍼法이 開發되어 臨床에 널리 活用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耳鍼, 面鍼, 鼻鍼, 舌鍼, 頭皮鍼, 眼鍼, 手鍼, 足鍼, 脊鍼, 腹鍼, 腕踝鍼 등을 包括한 약 十餘 種의 分區鍼法인 新鍼療法이 있고, 이들을 統稱하여 中國에서는 微鍼系統診療法이라고 한다.

그 중 眼鍼療法은 1974년에 彭이 《證治準繩》에 收錄된 後漢華佗의 觀眼察病에 관한 理論을 根據로, 《內經》을 爲始한 各種 醫書 중에 나타나 있는 眼에 關한 理論, 陰陽五行學說, 經絡藏象學說, 五輪八廓學說 및 後天八卦의 理論을 結合하여 眼球에 나타난 絡脈의 觀察과 刺鍼治療의 두 分野를 包括하고 있는데, 鍼灸臨床에서는 頭鍼과 더불어 中風治療에 特效가 있는 新鍼療法으로 알려져 있으며, 高血壓症과 各種 疼痛性疾患을 包含한 많은 疾病에도 좋은 效果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어 臨床活用の 價値가 期待되는 新鍼療法이다.

眼鍼療法은 取穴이 簡便하고, 施術의 方式이 容易하며, 刺鍼 時에 痛症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安全性이 높으며, 適用範圍가 廣範圍한 特徵이 있다.

眼穴定位法의 妥當性에 대하여 일부 學者들은 解剖學 및 經絡反應 등의 研究를 通하여 여러 가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眼鍼療法에 대한 研究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조사문헌 및 연구방법

1. 調査文獻

《黃帝內經》을 비롯한 여러 文獻 중에서 眼部와 經絡 및 臟腑와의 關係, 眼部의 望診, 五輪과 八廓의 概念과 定位 및 臟腑와의 對應關係, 그리고 先天 및 後天八卦學說 등의 理論과 關聯되는 28篇의 文獻을 選定하였다.

- (1) 彭靜山 著, 蔡禹錫 譯釋, 眼鍼療法¹⁾
- (2) 王肯堂, 證治準繩²⁾
- (3) 上海中醫學院, 最新鍼灸學³⁾
- (4) 李學仁, 臨床經絡腧穴學⁴⁾
- (5) 楊力, 中醫疾病預測學⁵⁾
- (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⁶⁾
- (7) 郭靄春, 黃帝內經素問語釋⁷⁾
- (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⁸⁾
- (9) 華佗, 中藏經⁹⁾
- (10) 王叔和, 脈經校釋¹⁰⁾
- (11) 傅仁宇, 審視瑤函¹¹⁾
- (12) 陳言, 陳無擇三因方¹²⁾
- (13) 王懷隱, 太平聖惠方¹³⁾
- (14) 吳謙, 醫宗金鑑¹⁴⁾
- (15) 胡巨瑗, 眼科三字經¹⁵⁾
- (16) 金禮蒙, 醫方類聚¹⁶⁾
- (17) 李梴, 醫學入門¹⁷⁾
- (18) 許俊, 東醫寶鑑¹⁸⁾
- (19) 廣州中醫學院, 中醫眼科學¹⁹⁾
- (20) 陳修園, 陳修園醫書五十種·眼科捷徑²⁰⁾
- (21) 撰人不詳, 異授眼科²¹⁾
- (22)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²²⁾
- (23) 孫思邈, 銀海精微²³⁾
- (24) 周伯崑, 周易知識通覽²⁴⁾
- (25) 張介賓, 類經圖翼²⁵⁾
- (26) 楊力, 周易與中醫學²⁶⁾
- (27) 劉傑, 中醫八卦醫學²⁷⁾
- (28) 孫啓鳳, 中國特種鍼法²⁸⁾

① 研究方法

《黃帝內經》등 28篇의 文獻의 內容 중 眼을 通한 臟腑病證의 診斷과 預後, 眼의 五輪·八廓의 概念 및 位置와 五臟六腑와의 對應關係, 臨床應用 등에 대하여 調査하였다. 또한 各家의 說을 比較分析하여 이를 根據로 比較 分析하였다.

2. 調査內容 및 考察

眼鍼療法은 1970年代에 眼과 全身의 相關性原理를 根據로 만들어진 새로운 微鍼系統診療法의 하나로 新鍼療法에 屬한다. 眼鍼療法은 特定된 13개의 眼穴區域을 選擇하여 刺鍼爲主의 治療를 施行하며, 經穴, 經絡, 臟腑의 聯系性 原理에 의해 治療效果를 나타내고 있고, 臨床診療時 反應이 비교적 靈敏하고 빠른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며, 眼鍼療法에서는 刺鍼 治療法과 望眼診病法으로 歸結된다.

眼鍼療法의 13개 眼穴 定位는 八廓學說과 八卦學說에 많이 依存하고 있으며, 本 論文에서는 眼穴의 定位, 關聯된 眼區의 分割과 臟腑配屬, 그리고 眼鍼의 臨床應用 등의 問題에 대하여 몇 개의 主題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1) 眼鍼療法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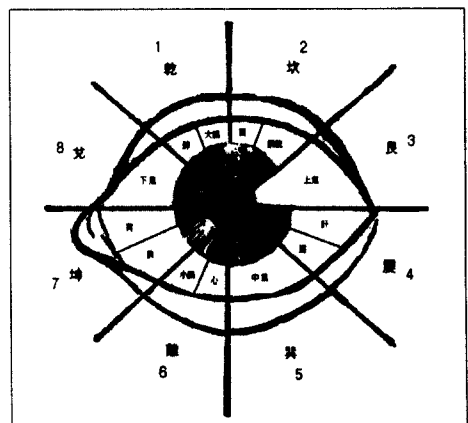
眼鍼療法은 《證治准繩·目門》에 引用된 華佗의 望眼察病에 관한 言及이 直接的인 契機가 되었는데, 華佗는 “目은 形態가 丸과 類似하고 瞳神은 가운데의 앞에 居하니, 日月이 東南方에서 밝고 西北方에서 어두운 것과 같다. 內에는 여섯 개의 大絡이 있어 心, 肺, 脾, 肝, 腎, 命門이 各各 하나씩을 主하고, 中絡은 여덟 개가 있으니 膽, 胃, 大·小腸, 三焦, 膀胱으로 各各 하나씩을 主하며, …… 무릇 病이 發하면 絲絡의 形色이 分明하여지므로 內의 어느 臟腑가 受病하였는지를 徵驗해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契機로 한 彭은 陰陽五行, 經絡藏象, 五輪八廓 및 周易八卦學說에 대한 數年의 研究와 大量

의 臨床試驗을 結合하여 眼鍼療法을 創案하게 되었으며, 觀眼識病法과 眼鍼穴位에 대한 刺鍼治療法의 形式으로 臨床에 應用하여 왔다.

眼鍼療法에서는 먼저 八廓과 後天八卦의 理論에 根據하여 眼球를 여덟 개의 特定된 區域으로 分割하고, 各 眼區에 對應되는 臟腑 즉 1區는 肺·大腸, 2區는 腎·膀胱, 3區는 上焦, 4區는 肝·膽, 5區는 中焦, 6區는 心·小腸, 7區는 脾·胃, 8區는 下焦를 配屬시킨 후, 各 眼區의 白睛을 觀察하여 나타난 血絡의 形態와 色彩를 綜合分析하고, 四診을 結合하여 五臟六腑와 四肢百骸의 疾病을 判斷하여 眼鍼治療의 取穴處方을 提示하는데, 이와 같은 診斷方法을 觀眼識病이라고 稱한다. 그리고 上記 여덟 개의 眼區에 配屬한 13개 臟腑의 所屬區域과 對應되는 13개의 眼眶區域을 眼鍼의 眼穴로 定位하고 그 穴區들은 ‘眼鍼眶區十三穴’이라고 統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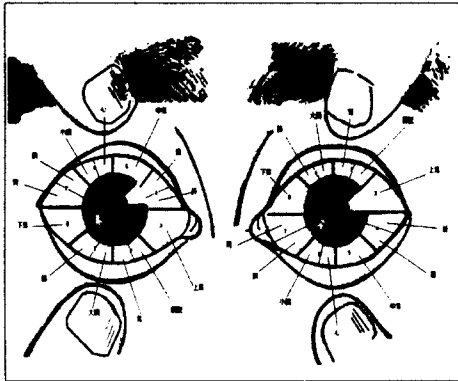
眼球위의 眼區의 分割을 施行한 후 各各의 眼區에 臟腑를 配屬시킨다. 彭은 여덟 개의 眼區를 分割하는 過程에서 八廓學說과 後天八卦의 理論을 根據로 하여 若干 變形시킴으로써 既往의 八廓分割法과 다른 方式의 眼區分割과 臟腑配屬을 하였다.

眼鍼의 眼區分割에 利用된 八廓學說은 韓醫眼科學의 發展過程에서 五輪學說의 基礎 위에 八卦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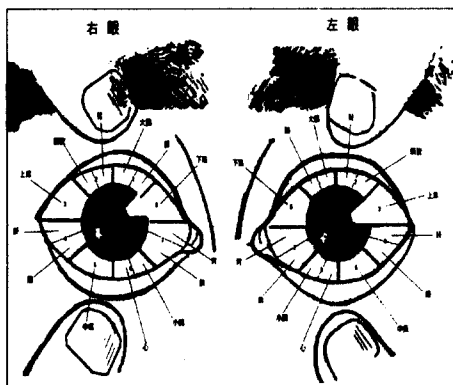
[그림 1] 左眼八區分割圖

理論을 吸收하여 形成된것으로 여러 가지 學說과 理論이 있었다. 이는 先天八卦와 後天八卦의 排列順序와 空間方位의 理論과 直關되며, 人體臟腑와 八卦의 配合關係와도 直關된다. 彭은 王의 主張에 따라 後天八卦의 理論에 따라 眼區와 臟腑를 分劃 및 定位하였다(그림 1).



[그림 2] 一次眼區分劃圖

1987年 1月 中國에서 眼鍼療法에 대한 國家鑑定 過程 중에서 王雪苔氏가 眼鍼療法의 첫 번째 眼區 分劃案에서 左右眼의 八區十三穴의 同名穴區의 分布는 左右가 전혀 對稱되지 않는 것으로서 經絡의 循行과 經穴의 分布의 對稱性 原理에 符合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問題點을 提起하였다. 彭은 王雪臺



[그림 3] 二次眼區分劃圖

氏가 提起한 問題點을 받아 들어 繼續인 研究와 臨床을 거쳐 새로운 眼區의 分劃定位方法을 確定하고 發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眼區의 二次分劃案이다. 새로운 眼區의 分劃案을 보면 左眼은 그대로 두었고 다만 右眼을 變化시켰는데, 左眼의 眼區圖를 完全히 뒤집어서 回轉시키되 瞳孔을 지나는 上下縱軸에 따라 右眼의 方向으로 180度 回轉시켜 그 回轉後의 眼區圖를 右眼의 眼區案으로 確定하였다(그림 3).

새로운 眼區分劃方法을 使用하여 臨床治療에 應用한 結果, 그 治療의 效果는 以前의 眼區分劃方法과 전혀 差異가 없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眼區分劃定位는 韓醫學 理論中의 經絡學說에 根據를 두고 眼鍼療法을 發展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彭의 眼鍼療法의 眼區分劃定位는 最終的으로 形成되었다.

2) 眼鍼療法의 古典理論根據

眼區의 分劃定位와 臟腑의 配屬은 華佗의 觀察病의 理論의 基礎위에 陰陽五行學說, 經絡學說, 藏象學說 등을 基礎인 理論根據로 하여 五輪八廓學說과 周易八卦學說을 結合하여 創案한 것이다. 그 중 經絡學說은 五臟六腑와 眼의 聯關性을 說明하는 理論의 基盤이고, 五輪八廓學說은 이러한 聯關性을 보다 具體的으로 밝힌 應用體系로서 眼鍼療法의 創案을 可能하게 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① 眼鍼療法의 經絡學的 理論基礎

眼部의 經絡特性에 대하여 《素問》·〈五臟生成篇〉에서는 “諸脈者皆屬於目.”라 하였고,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라 하였으며, 《靈樞》·〈大惑論〉에서는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於目而爲之精. 精之窠爲眼, 骨之精爲

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窠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 裹攣筋骨血氣之精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라고 說明하였다. 彭 등은 眼鍼療法の 經絡學的基礎에 대하여 《內經》, 《難經》, 《甲乙經》 등 古文獻을 中心으로 具體的으로 分析考察한 結果 十二正經, 奇經八脈, 十二經別, 十二經筋 등은 모두 眼과 密接하게 連繫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 十二正經만 해도 足三陽經, 手三陽經, 手少陰經 그리고 足厥陰經 등 여덟 개의 經絡이 眼을 集散地로 하여 眼球와 直接的인 連繫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4개 經絡은 經絡의 相互表裏關係에 의해 眼과 間接的으로 連繫되어 있다고 說明하였다.

② 五輪學說

五輪學說은 《內經》에서 起源되고 있는데, 《靈樞》·〈大惑論〉에서는 “五臟六腑의 精氣는 모두 目에 上注하여 精이 되고, 精의 窠는 眼이 되고, 骨의 精은 瞳子가 되고, 筋의 精은 黑眼이 되고, 血의 精은 絡이 되고, 그 窠氣의 精은 白眼이 되고, 肌肉의 精은 約束이 되어 筋骨氣血의 精을 감싸고 脈과 더불어 系가 되어, 위로는 腦에 屬하고 뒤로는 項中으로 出한다.”고 하여 瞳子는 骨之精, 黑眼은 筋之精, 絡은 血之精, 白眼은 窠氣之精, 約束(胞臉)은 肌肉之精과 聯關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靈樞》·〈癩狂篇〉에서는 “目眦外決於面者是 爲銳眦하고 在內近鼻者是 爲內眦하며 上爲外眦하고 下爲內眦한다.”라고 하였는데, 以上에서 보면 《內經》에서 瞳子, 黑眼, 絡, 白眼, 約束, 系, 銳眦(外眦), 內眦 등의 韓醫眼科學的 解剖名稱을 提示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沿襲되어 使用되고 있어 眼科學的 重要한 基礎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五臟六腑 중에서 肝과 心이 眼과 가장 緊密한 關係가 있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이라 하였고, 《素問》·〈五臟生成篇〉에서는 “人臥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라 하였으며, 《靈樞》·〈脈度篇〉에서는

“五臟常內關於上七竅也……,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라 하였고, 《靈樞》·〈師傳篇〉에 “五臟六腑, 心爲之主……, 肝者主爲將, 使之候外, 欲知堅固, 視目大小.”라 하였으며, 《靈樞》·〈五閱五使篇〉에서는 “目者, 肝之官也.”라 하여 眼과 肝의 特殊한 關係를 說明하였다. 《素問》·〈五臟生成篇〉에서 “心之合脈也……, 諸脈者皆屬於目, 諸血者皆屬於心, 故人臥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라 하였고, 《素問》·〈精解微論篇〉에서는 “夫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其竅也, 華色者其榮也, 是以人有德也, 則氣和於目, 有亡, 懼知於色……, 夫水之精爲志, 火之精爲神, 水火相感, 神志俱悲, 是以目之水生也. 故諺言曰: 心悲名曰志悲, 志與心精, 共湊於目也.”라고 하였으며, 《靈樞》·〈口問篇〉에서 “心者, 五臟六腑之主也,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라고 하였고, 《靈樞》·〈師傳篇〉에서는 “五臟六腑, 心爲之主……, 肝者主爲將, 使之候外, 欲知堅固, 視目大小.”라고 하였으며, 《靈樞》·〈五癯津液別篇〉에서는 “五臟六腑, 心爲之主, 耳爲之聽, 目爲之候……故五臟六腑之津液, 盡上滲於目.”이라고 하였고, 《靈樞》·〈大惑論篇〉에서는 “目者, 心之使也, 心者, 神之舍也, 故神分精亂而不揣.”이라 하여 眼과 心의 密切한 關係를 說明하였다. 그 외에 眼은 또 脾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이 說은 李의 主張으로 《內經》에서 起源되고 發展하여 온 것이다.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心事煩冗, 飲食失節, 勞役過度, 故脾胃虛弱, 心火太盛, 則百脈沸騰, 血脈逆行, 邪害孔竅天明而日月不明也. 夫五臟六腑之精皆稟受於脾土而上貫於目, 脾者諸陰之首也, 目者血氣之宗也, 故脾虛則五臟之精氣皆失所司, 不能歸明於目矣. 心者, 君火也, 主人之神, 宜靜而安, 相火代行其令. 相火者, 包絡也, 主百脈, 皆榮於目. 既勞役運動, 勢乃妄行, 又因邪氣所并而損其血脈, 故諸病生焉. 凡醫者不理脾胃及養血安神, 治標不治本, 不明正理也.”라고 하여 脾는 後天之本으로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두 脾土에서 起源되며, 그 精氣는 모두

眼으로 集中되어 눈을 밝게 한다고 하였다.

眼의 生理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이미 眼에 대하여 陰과 陽을 나누었는데, 《靈樞》·〈大惑論〉에는 “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揣而精明也.”라고 하여 眼을 陰에 屬하는 瞳子와 黑眼, 陽에 屬하는 白眼과 赤脈으로 나누어 眼의 陰陽運動(氣의 運動, 卽 太極兩儀의 轉動變化)의 生理를 說明하였는데, 이는 後世에 와서 五行學說과 八卦學說을 利用하여 眼의 生理病理를 說明하는 理論의 基礎가 되었고 同時에 五輪八廓學說의 基礎가 되었다.

그리고 《內經》에는 주로 眼의 神, 色, 形, 態를 觀察하여 疾病의 性質과 預後를 診斷하는 內容이 記載되어 있으며, 그 後의 《中藏經》과 《脈經》 등에 보이는 眼部望診도 모두 여기에서 起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五輪八廓을 통한 診斷方法도 어떤 意味에서는 역시 여기에서 起源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內經》중 眼色과 疾病과의 關係에 關하여 《靈樞》·〈小鍼解篇〉에서는 “睹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者, 言上工知相五色於目, 有知調尺寸小大緩急滑澀, 以言所病也.”라고 하여 目的 五色을 觀察하여 病所를 말할 수 있는 者는 上工이라 稱贊하였고, 《靈樞》·〈四時氣篇〉에서는 “睹其色, 察其目, 知其散復者, 視其目色, 以知病之存亡也.”라고 하였으며, 《靈樞》·〈邪客篇〉에서는 “天有日月, 人有兩目……此人與天地相應者也. 因視目之五色, 以知五臟, 以決生死; 視其血脈, 察其色, 以知其寒熱痛痺也.”라고 하였고, 《靈樞》·〈論疾診尺篇〉에서는 “目色赤者 病在心, 白在肺, 靑在肝, 黃在脾, 黑在腎. 黃色不可名者, 病在胸中.”이라 하였으며, 또한 死證의 預後判斷에 대하여 《素問》·〈五臟生成篇〉에서 “凡相五色(之奇脈), 面黃目靑, 面黃目赤, 面黃目白, 面黃目黑者, 皆不死也. 面靑目赤, 面赤目白, 面靑目黑, 面黑目白, 面赤目靑, 皆死也.”라고 하여 “皆不死者”는 面黃함에 原因이 있는데 面黃

하면 胃氣가 있어 “有胃氣則生하고 無胃氣則死.”하므로 生하게 되고, “皆死者”는 面目의 色이 相剋相乘함으로 死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眼의 白睛위의 赤脈과 疾病의 關係에 關하여 《靈樞》·〈論疾診尺篇〉에서 “診目痛, 見赤脈從上下者, 太陽病; 從下上者, 陽明病; 從外走內者, 少陽病. 診寒熱, 赤脈上下至瞳子, 見一脈, 一歲死; 見一脈半, 一歲半死, 見二脈, 二歲死; 見二脈半, 二歲半死; 見三脈, 三歲死.”라고 하여 주로 白睛위의 赤脈의 走向과 部位 및 數量에 따라 疾病을 診斷하고 死期를 預測하는데, 이는 後世의 五輪八廓理論에 따라 疾病을 診斷하는 方法의 原始段階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眼鍼療法》에서 提示한 “觀眼識病法”의 始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後世의 《審視瑤函》에서는 “八廓之經絡, 乃驗病之要領. 蓋驗廓之病, 與輪不同. 輪以通部形色爲證, 而廓惟以輪上血脈絲絡爲憑, 或粗細連斷, 或亂直赤紫, 起於何位, 侵犯何部, 以辨何臟何腑之受病, 淺深輕重, 血氣虛實, 衰旺邪正之不同, 察其自病傳病經絡之生克順逆而調治之耳. 人之謂此八廓, 如三焦之有名無實以爲無用者, 此謬之甚者也.”라고 하여 八廓이 診斷에서 實用性이 있음을 強調하였다. 여기서 具體적인 望診의 方法으로서는 眼의 血脈絲絡의 形色, 部位, 延伸의 狀況 등을 觀察하는 것으로, 이는 《內經》을 따름으로써 八廓이 無用하다는 說을 批判하여 《內經》의 要旨을 깊이 理解하고 發揮한 眼部望診의 重要한 論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外에 眼의 神態와 疾病과의 關係에 대한 內容을 살펴보면, 《素問》·〈精解微論篇〉에서 “夫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其竅也, 華色者其榮也, 是以人有德也, 則氣和於目, 有亡, 憂知於色……. 夫水之精爲志, 火之精爲神, 水火相感, 神志俱悲, 是以目之水生也. 故諺言曰: 心悲名曰志悲, 志與心精, 共湊於目也.”라 하였고, 《靈樞》·〈大惑論篇〉에서는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營衛魂魄之所營也, 神氣之所生也. 故腎勞則魂魄散, 志意亂,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故陰陽合揣而精明也。目者，心之使也，心者，神之舍也，故神分精亂而不揣。”이라 하여 眼의 神態가 五臟六腑의 生理 및 病理狀態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眼神을 通하여 五臟六腑의 狀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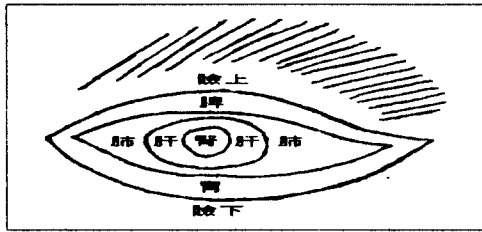
《華氏中藏經》·〈卷中·察聲色形證決死生第四十九〉와 《脈經》·〈扁鵲華佗察聲色要訣第四〉에 도 眼部望診의 內容이 보이는데, 모두가 《內經》에서 起源되어 多少의 發展과 補充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以上과 같이 《內經》에 記載된 眼에 關한 論述은 後世의 眼科學 및 眼科의 五輪八廓學說에 있어 重要한 基礎가 되었다.

五輪學說은 비록 《內經》의 理論에서 起源되었지만 五輪이란 名稱은 《太平聖惠方》에서 보이는데, “眼有五輪，風輪，血輪，氣輪，水輪，肉輪，五輪應於五藏，隨氣之主也。”라고 하여 五輪은 각각 風輪，血輪，氣輪，水輪，肉輪이며，各各 五臟에 對應되고 있다고 하였다. 五輪의 意味에 對해서 《醫宗金鑑》에서 “五輪者，肉輪，血輪，氣輪，風輪，水輪也。謂之輪者，目睛運動如輪之意也。”라고 解釋을 하였고，《眼科三字經》에서도 “輪，卽五輪。內通五臟，在目爲五輪。名爲輪者，以其圓轉運動，形如車輪也。”라고 하여 같은 意味로 解釋하였다. 그리고 五輪 中 各輪을 命名한 意味에 對하여 여러 醫書에서 解釋을 하였는데 모두가 大同小異하였고, 그 中 代表的인 것을 보면 《太平聖惠方》에서 “肝氣通於目，肝生風，眼有風輪也。心生血，眼有血輪也。脾生肉，眼有肉輪也。肺生氣，眼有氣輪也。腎者，屬北方壬癸之水也，眼有水輪也。”라고 하여 五臟의 生理機能에 根據하여 對應되는 五輪의 名稱을 定하였다. 즉 肝은 風을 主하므로 眼에는 風輪이 있고, 心은 血을 主하므로 眼에는 血輪이 對應되며, 脾는 肌肉을 生하므로 眼에는 肉輪이 있고, 肺는 氣를 生하므로 眼에는 氣輪이 있으며, 腎은 水에 屬하므로 眼에는 水輪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五輪學說에서는 이와 같이 眼의 五輪과 五臟의 對應인 配屬關係를 確定하였는데, 이는 《內經》에서 起源한 것이다. 즉 瞳子是 骨의 精이고 腎은 生理機能上 骨을 主하므로 瞳子是 腎과 對應되고, 黑眼은 筋의 精이고 肝이 筋을 主하므로 黑眼은 肝과 對應되며, 絡(大小眇)은 血의 精이고 心이 血을 主하므로 絡(大小眇)은 心과 對應되고, 白眼은 氣의 精이고 肺가 氣를 主하므로 白眼은 肺와 對應되며, 約束(胞臉)은 肌肉의 精이고 脾가 肌肉을 主하므로 約束(胞臉)은 脾와 對應되는 것이다. 後世의 五輪學說은 이 理論을 基礎로 하여 眼을 다시 五輪으로 나눈 것인데, 水輪은 瞳子, 風輪은 黑眼, 血輪은 絡(大小眇), 氣輪은 白眼, 肉輪은 胞臉에 該當되며; 五輪과 五臟의 對應關係는 《內經》에 따라 瞳子水輪은 腎에, 黑眼風輪은 肝에, 大小眇(絡)血輪은 心에, 白眼氣輪은 肺에, 胞臉(約束)肉輪은 脾에 應한다고 하였다. 《劉河間傷寒三六書》에서는 이러한 眼과 五臟六腑의 關係에 對하여 “眼通五臟，氣貫五輪，外應肝候.”라고 分明하게 敘述하였다. 五輪과 五臟의 配屬關係에 關하여서는 各 醫書에서 서로 異見이 없었으며 모두 《內經》의 說을 따르고 있었다. 그 中 《眼科捷徑》에서는 五輪과 五臟의 配屬關係를 論하지 않고 五輪과 五臟經絡의 配屬關係를 論하였는데, “肝經屬木，亦曰風輪，黑暗係焉。心經屬火，乃爲血輪，眼白之頭尾名大小眇者，盡皆屬之。脾經屬土，是爲肉輪，上下眼胞統之。肺經屬金，氣輪是也，近黑睛之眼白屬之。腎經屬水，亦名水輪，黑睛之瞳人乃爲所屬。此五經分爲五輪者也。”라고 하여 五臟經絡인 肝經，心經，脾經，肺經，腎經으로 五臟인 肝，心，脾，肺，腎을 代替하였다. 이는 經絡學說의 視角에서 五輪과 五臟의 關係를 論한 것이고, 또한 “十二經脈，三百六十五絡，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이라고 한 것과 같이 五臟과 五輪의 連係는 實際로는 五臟의 經絡 등을 通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經絡의 重要性을

強調하기 爲하여 五臟의 經絡名을 使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4).



[그림 4] 五輪之圖

③ 八廓學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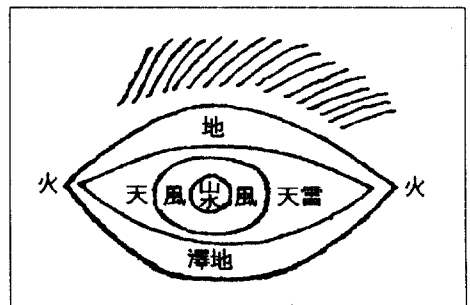
八廓學說의 形成은 八卦學說의 導入과 關係되며, 五輪學說의 進一步의 發展이라 할 수 있는데, 王 등은 이를 “其五輪者, 應五行; 其八廓者, 象八卦” 또는 “八廓應乎八卦.”라고 表現하고 있었다. 즉, 八廓은 五行學說과 八卦學說이 結合되어 나온 理論이다. 八廓과 五輪의 關係에 대하여 吳 등은 臟과 腑가 表裏關係가 있는 것처럼 八廓과 五輪도 表裏關係를 이루는데, 八廓은 表이고 六腑의 病을 主하고, 五輪은 里이고 五臟의 病을 主한다고 하였다.

八廓이란 名稱은 最初로 《三因方》에서 나타났고, 여덟 개 眼廓에 대한 命名方法은 주로 세 가지 方式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臟腑의 生理機能에 根據한 八廓의 命名法으로서 《中醫眼科學》과 《觀目診病》에 引用된 內容 중 南宋末期의 《葆光道人眼科龍木集》에서는 八廓을 各各 傳導廓, 津液廓, 會陰廓, 關泉廓, 養化廓, 抱陽廓, 水穀郭, 清淨廓으로 命名하였다. 그리고 《醫方類聚》 등의 內容中 元代의 《世醫得效方》은 八廓에 天, 地, 火, 水, 風, 雷, 山, 澤의 八象의 名稱을 配屬시켜 天廓, 地廓, 火廓, 水廓, 風廓, 雷廓, 山郭, 澤廓이라고 각각 稱하였는데, 이것이 八廓의 두 번째 命名法이다. 세 번째 命名法은 元末의 《銀海精微》에 보이는데,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의 八卦의 正名을 붙여 八廓을 각각 乾廓, 坎廓, 艮廓, 震廓, 巽廓, 離廓, 坤廓, 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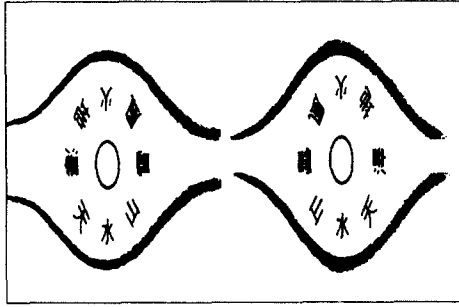
廓으로 命名하였다.

《證治準繩》을 보면 八廓의 含意에 대하여 “八廓應乎八卦, 脈絡經緯於腦, 貫通臟腑, 達血氣往來以滋于目. 廓猶城郭然, 各有門路往來, 而匡廓衛禦之義也.”라고 解釋하고 있는데, 즉 八은 八卦에 應한다는 뜻이고, 廓은 城廓이란 뜻으로, 眼에 있어서 氣血往來의 門路(徑路)를 지키고 防禦하는 여덟 개의 重要한 構成部分이라는 것이다. 《醫宗金鑑》과 《審視瑤函》에서도 八廓의 意味에 대하여 “謂之廓者, 猶城郭衛禦之義也.”라는 表現을 使用하고 있다.

八廓의 眼位는 八廓學說의 臨床運用에 있어서 辨證論治하는 着眼點이 되는 關鍵的인 問題이다. 《醫方類聚》 등의 內容을 보면, 最初로 八廓의 眼位를 說明한 것이 《得效方》임을 알 수가 있으며(그림 5), 《醫學入門》에 이르러서는 八廓의 眼位를 다시 調整하였다. 《醫方類聚》 등에 收錄된 《得效方》의 內容을 보면, “天廓은 白睛에 位置하고 있고 肺大腸에 屬하며, 地廓은 上下胞臉에 있고 脾胃에 屬하며, 火廓은 大小眦에 있고 心命門에 屬하고, 水廓은 瞳人到 있고 腎에 屬하며, 風廓은 黑睛에 있고 肝에 屬하고, 雷廓은 白睛의 外眦側의 上方에 있고 小腸에 屬하며, 山廓은 瞳人到 있고 膽에 屬하고, 澤廓은 白睛의 內眦側의 下方에 있고 膀胱에 屬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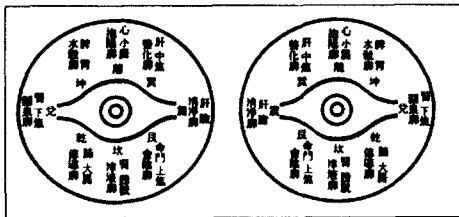


[그림 5] 八廓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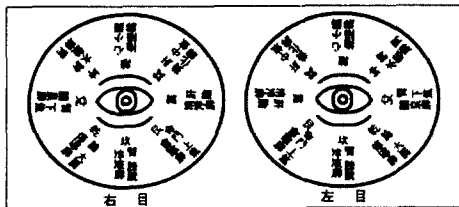


[그림 6] 八廓之圖

現代의 《眼鍼療法》에서는 臨床經驗의 基礎위에서 八廓學說에 대하여 多少 다른 觀點에서 接近하고 있는데, 後天八卦를 利用하여 眼을 正面으로부터 여덟 개의 區域으로 나누고, 이와 相應하는 臟腑를 配屬시켜 各區域의 脈絡形色에 根據하여 眼과 全身의 疾病에 대하여 診斷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具體的으로는 絡脈의 形狀은 7가지, 色은 8가지로 나누어 異常한 絡脈이 나타난 部位에 따라 臟腑의 病을 確認하며 아울러 異常한 絡脈이 나타난 眼區에 微小한 鍼으로 直接 刺鍼하여 疾病을 治療한다고 하였다(그림 7, 8). 이는 五輪 八廓學說에 대한 發展이고 韓醫學의 眼部治療法 및 眼科學에 대한 發展이라고 할 수 있다고 思慮된다.



[그림 7] 眼八廓圖



[그림 8] 八廓之圖

3) 眼區의 分劃定位와 五臟六腑의 配屬

① 眼區의 一次分劃案

華佗는 心, 肺, 脾, 肝, 腎, 命門, 膽,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등 14개의 臟腑를 眼球에 配屬시켰고, 彭은 이를 基礎로 하고 王의 八廓學說을 研究分析한 結果, 三焦를 上焦, 中焦, 下焦로 區分한 것을 그대로 繼承하였고, 命門과 心包는 除外하여 心, 肺, 脾, 肝, 腎, 膽, 胃, 大腸, 小腸, 上焦, 中焦, 下焦, 膀胱의 총 13개의 臟腑를 眼에 配屬시켰다.

眼球를 分劃하는 方法은 兩眼을 正面으로 바라본 狀態에서 瞳孔의 中心을 基準으로 水平線과 垂直線을 그어 4개의 區域으로 나누고, 다시 4개의 區域을 2等分하여 여덟 개의 똑같은 區域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眼의 여덟 개의 經區이다.

眼區를 分劃할 때 頭北足南으로 누운 狀態에서 施行하며, 左眼의 西北方은 乾卦, 正北은 坎卦, 東北은 艮卦, 正東은 震卦, 東南은 巽卦, 正南은 離卦, 西南은 坤卦, 正西는 兌卦에 各各 該當된다. 臟腑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乾屬金 肺與大腸屬金하고, 金生水 坎爲水 腎·膀胱屬水하며, 水生木 正東方 肝·膽屬木하고, 木生火 正南方 心·小腸屬火하며, 火生土 西南方 坤爲地 脾·胃屬土한다. 또한 東北艮爲山하고 山은 高峰으로 上焦로 定하며, 東南巽爲風하여 中焦로 定하고, 正西兌爲澤하여 下焦로 定한다(그림 1).

右眼의 眼區分劃은 眼鍼療法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認識上의 變化와 發展으로 因해 先後로 두 가지의 分劃定位方法이 形成되었다. 王은 八廓에 대하여 “左目屬陽, 陽道順行, 故廓之經位法象亦以順行. 右目屬陰, 陰道逆行, 故廓之經位法象亦以逆行. 察乎二目, 兩眦之分則昭然可見陰陽順逆之道矣.”라고 하였고, 《眼鍼療法》의 內容 중 楊上善은 “陰陽者, 左右之道路也.”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人體의 陰陽과 經絡의 循行은 左右, 前後, 內外가 모두 互應되므로 左眼의 八區分劃方法을 그대로 右眼에 適用하는 것은 適切하지 못하다. 彭은 “陽道順行, 陰道逆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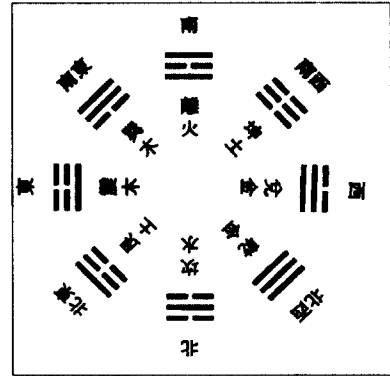
의 原則에 따라 앞에서 左眼眼區의 進行順序(排列順序)를 左轉(時計 回轉方向)하게 하여 “陽道順行”의 原則에 符合되게 排列하였고, 右眼의 眼區는 右轉(時計回轉의 反對方向)하는 進行順序로 “陰道逆行”의 原則에 符合되게 排列하였다. 具體的인 方法을 살펴보면, 左眼의 眼區分劃圖를 眼의 水平橫軸에 따라 上下로 180度 回轉시키고 回轉後의 眼區圖를 右眼의 八區分劃定位로 하였다(그림 2).

② 眼區의 二次分劃案

彭은 王雪臺氏가 提起한 問題點을 參照하여 二次分劃案을 提示하였는데 그 새로운 眼區의 分劃案을 보면, 左眼은 그대로 두었고 다만 右眼을 變化시켰는데, 左眼의 眼區圖를 完全히 뒤집어서 回轉시키되 瞳孔을 지나는 上下縱軸에 따라 右眼의 方向으로 180度 回轉시켜 그 回轉後의 眼區圖를 右眼의 眼區案으로 確定하였다(그림 3).

4) 二次分劃案의 問題點과 새로운 眼區分劃案의 提示

먼저 眼區分劃의 모델인 八廓學說의 發展과 變遷을 살펴보면, 八卦의 理論이 이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得效方》에서는 “五輪者, 應五行, 八廓者, 應八卦.”라 하였고, 《新增醫門寶鑑》에서는 “八廓者, 八卦也.”라고 하였으며, 《證治準繩》에서는 “八廓應乎八卦.”라 하였는데 이는 모두 八廓과 八卦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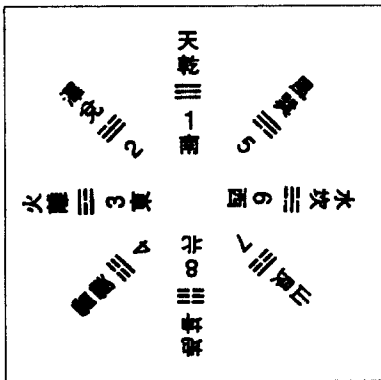
[그림 10] 後天八卦 方位圖

直關性을 表明하고 있다. 八卦의 卦名 自體로 八廓을 命名한 醫家도 있었기에, 眼區의 分劃에 있어서 八卦는 八廓의 代名詞라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림 9, 10).

先天八卦는 一名 伏羲八卦라 부르며, 그 排列順序는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 등이며, 方位는 乾南, 兌東南, 離東, 震東北, 巽西南, 坎西, 艮西北, 坤北 등이고, 各卦가 象徵하는 自然八象은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 등이다. 後天八卦는 一名 文王八卦라 부르며, 그 排列順序는 乾一, 坎二, 艮三, 震四, 巽五, 離六, 坤七, 兌八 등이며, 方位는 乾西北, 坎北, 艮東北, 震東, 巽東南, 離南, 坤西南, 兌西 등이고, 各卦의 卦는 五行과 相應하는데 乾과 兌는 金에, 坤과 艮은 土에, 離는 火에, 巽과 震은 木에, 坎은 水에 屬한다. 眼鍼療法에서 眼區를 分劃하고 定位하는 것은 人體의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하는데 應用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人體의 病理的인 變化規則을 正確하게 反映하려면 先天八卦보다 後天八卦가 보다 適切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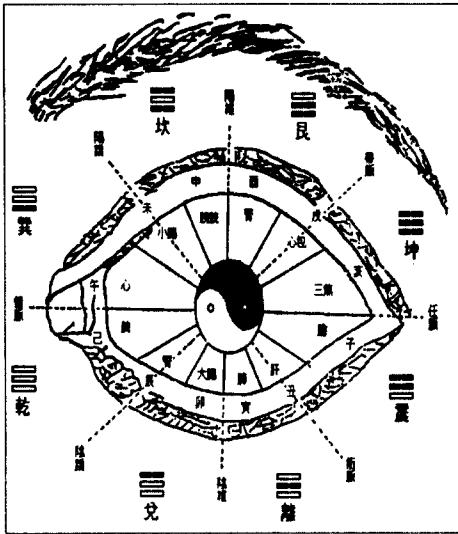
各 醫家들이 論한 八廓의 眼位와 臟腑配屬을 살펴보면, 八卦의 方位와 排列順序와는 相關없이 다만 그 象徵的인 意味만을 取하여 五臟이나 六腑를 代表했을 뿐이었다.

《道家眼鍼療法》⁴⁹⁾을 보면 左眼의 眼區圖와 左右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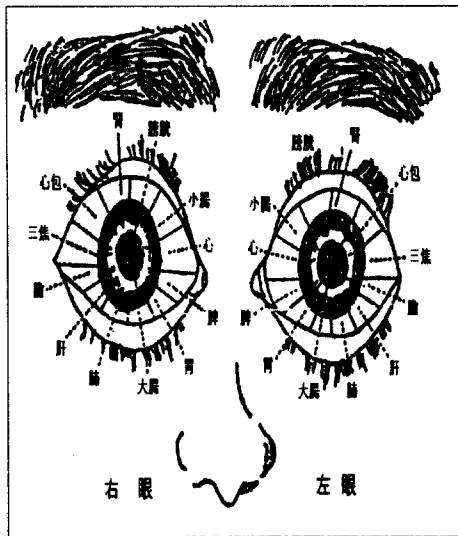


[그림 9] 先天八卦 方位圖

의 眼鍼穴區圖는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11, 12).



[그림 11] 左眼眼區分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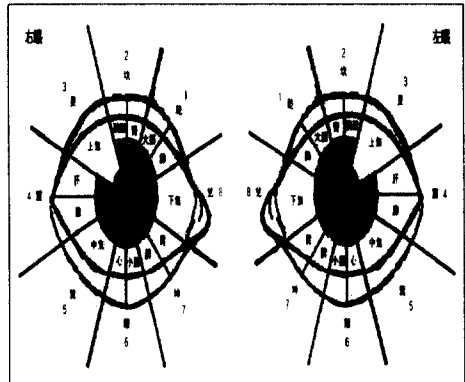


[그림 12] 左右眼區穴位分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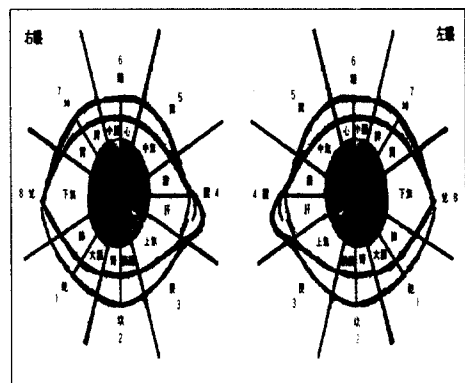
여기에서 眼區를 人體의 子午流注 學說을 引用하여 人體의 元氣가 發生하기 始作하는 時刻인 子時를 坤卦에 配屬하고, 元氣가 제일 旺盛한 時刻인 午

時를 乾卦에 配屬시킴으로써 眼의 天地의 位置를 定하였는데, 各各 內眦의 아래와 外眦의 上方에 配置시켰다.

그리고 《眼鍼療法》의 二次眼區分劃方法을 살펴보면, 後天八卦를 利用하여 眼의 八區를 分劃定位하고 나아가서 臟腑를 配屬시켰는데, 左眼의 八區圖를 보면 後天八卦의 排列順序 그리고 各 卦象이 代表하는 臟腑의 卦位配屬關係는 서로 一致함을 보이고 있어 後天八卦의 原理에 符合된다. 그런데 《審視瑤函》과 《銀海指南》의 眼八廓圖를 보면 坎, 震, 離, 兌가 모두 正位에 있고, 人體의 頭部, 耳部, 鼻部, 舌部, 手部, 臍部 등의 八卦全息圖를 보아도 坎離震兌 등의 4개의 卦가 모두 四方의 正位에 位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眼八區圖는 다음과 같다(그림 13).



[그림 13] 左右眼八區新圖(a)



[그림 14] 左右眼八區新圖(b)

後天八卦의 方位는 離南, 坎北을 定함에 있어서 위쪽에 離南, 아래쪽에 坎北의 位置를 定하여 上은 離가 되고 下는 坎이 되어 있다.

《眼鍼療法》에서는 이와 달리 坎卦는 眼의 위쪽에, 離卦는 眼의 아래쪽에 配屬시켰는데 人體生理의 實際에 符合되는 것이다(그림 14).

III. 結 論

28種의 文獻을 通하여 眼鍼療法에 대해 分析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眼區의 分割, 眼穴의 定位 및 臟腑의 相互配屬關係는 華佗의 論述을 根據로 하고, 《內經》의 眼에 관한 理論, 陰陽五行學說, 經絡藏象學說, 五輪八廓學說 및 周易八卦의 理論을 結合하여 創案되었으며, 이 중 가장 重要한 理論의基礎는 經絡學說이다.

2. 眼區分割과 臟腑配屬은 《證治准繩》의 五輪八廓學說을 根幹으로 形成되었다.

3. 先天八卦와 後天八卦의 排列順序와 空間方位는 眼鍼八區의 分割과 眼穴定位에 重要한 影響을 미쳤으며, 後天八卦를 選擇하는 것이 妥當한 것으로 나타났다.

4. 彭의 眼區分割과 眼穴定位案을 後天八卦의 空間方位理論과 一致되게 修正한 結果, 《審視瑤函》, 《銀海指南》 및 《眼科三字經》 등의 八廓眼位圖와 一致됨을 알 수 있었다.

以上과 같은 結論을 살피 본 結果, 眼鍼療法은 其他의 鍼法 등과 有機的으로 結合할 때 보다 좋은 臨床效果를 볼 수 있고 適用 病症의 範圍도 擴大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며, 特히 새로 構想한 眼區分割 및 眼穴定位案과 彭의 既存의 眼鍼案에 대한 臨床의인 比較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慮된다.

IV. 참고문헌

1. 彭靜山, 眼鍼療法,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0: 1-8.
2. 王肯堂, 六科證治准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2: 416-421.
3. 上海中醫學院, 最新鍼灸學, 北京: 中國衛生出版社, 1977: 103.
4. 李學仁 외 3명,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113-114, 121.
5. 楊力著, 中醫疾病預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70-71, 75-76.
6.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上冊, 1995: 74, 86, 345, 478, 495, 501, 512, 514, 533, 537, 539, 下冊, 114, 270-271, 280, 320, 435-436.
7. 郭霽春, 黃帝內經素問語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5, 26, 67, 74, 114-115, 588-589.
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臺北: 五洲出版社, 1984: 168.
9. 華佗 著, 道藏精華第六集之八, 華氏中藏經, 文山遜叟蕭天石 主編, 素問靈樞類纂約注合刊, 臺灣: 自由出版社, 年度未詳: 43-46.
10. 王叔和 著, 脈經校釋, 福州市人民醫院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35, 237-238, 242-243.
11. 傅仁宇, 審視瑤函,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年度未詳: 12-13, 19-21.
12. 陳言, 陳無擇三因方, 吳鞠堂評注, 臺灣: 臺聯國風出版社, 卷之十六, 1978: 8.
13. 王懷隱 外, 太平聖惠方, 出版社不詳, 年度未詳: 898-899.

14. 吳謙 外.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019-2023.
1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眼科三字經. 歷代中醫珍本集成三十三. 清·胡巨瑗纂輯. 男侄景康華謹校. 上海: 上海三聯書店. 年度未詳: 1-3.
16. 金禮蒙 外. 醫方類聚. 浙江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校點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8-9, 19-20.
17. 李挺. 編注醫學入門. 共五冊의 四. 서울: 聯合醫書. 年度未詳: 9-14.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88-291.
19. 中醫眼科學. 東洋醫學叢書. 第七. 서울: 一中社. 1990: 3-6, 10-12.
20. 陳修園.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風出版股份有限公司. 1978: 847, 849.
2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異授眼科. 歷代中醫珍本集成三十三. 清·撰人不詳. 上海: 上海三聯書店. 年度未詳: 1-3, 12, 24.
22.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231.
23. 孫思邈 著. 銀海精微. 周亮 較正. 北京: 北京市中國書店出版. 年度不詳: 卷上. 23. 卷下. 22.
24. 周伯崑. 周易知識通覽. 濟南: 齊魯書社. 1993: 454-457, 473-475.
2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1992: 294. 403-404.
27. 劉傑. 袁俊. 中醫八卦醫學. 青島: 青島出版社. 1995: 92-98, 248-249.
26.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7: 49-51.
28. 孫啓鳳. 中國特種鍼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11-26.